

미국 MIT
불교학생회서 보내온
새해인사



“공부·수행·자비” 실천하는 한해로”

저희 프리즈노다야 MIT 불교학생회는 새해를 맞아 한국 불자님들과 쉼터(Shelter)의 성취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일해주신 불심원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리즈노다야 재단 및 동 연구소, 그리고 저희 불교학생회는 새해에도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크게 확장하여 공부와 수행, 자비공덕을 더불어 실천할 계획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전법실천'으로는 MIT 본교캠퍼스를 중심으로 참선수행의 일상생활화를 주관하여 점차 다른 대학가로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본교 부설 '불교학연구소' 및 '보디마르가 사이버법학' 개설을 위한 종합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한편, 인도 뉴델리의 산티 스투다의 '세계평화의 탕' 장엄불사를 지원합니다.

이와 아울러 '자비실천'으로는 저희 불교학생회의 'IDEA' 팀이 인도 현지에서 결핵환자 3500명 치료와 예방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일반보건관리요원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복구가 부진한 스리랑카의 쓰나미 피해지역에 현지파견 자원봉사를 지속하며 스님들을 대상으로 간호조무 및 응급의료 연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프리즌자비' 팀은 미국 내에서 임종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등 간호조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따야' 자비 팀은 인도에서 극빈아동들에게 보정기를 무상보급하고 월 700명의 외래환자를 위한 무료진료소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프리즈노다야 망갈랄' 팀과 '자비의 숲' 팀이 공동으로 인도에서 건설 중인 노인의 휴식시설과 경로원도 새해에 완공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희 후원자들이 베푸시는 시간과 자원 등 자비로운 보시로 이뤄집니다. 한국의 불자님들도 이웃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찾아가시리라 믿습니다. 밝은 새해에도 한국의 불자님들과 저희 불교학생회 사이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불제자들의 바른 뜻이 바른 열매로 맺어지는 창으로 기쁜 날들입니다.

회장 텐진 프라다시 합장

이웅산 수지 평화인권상 대리 수상

지난해 12월 19일자 '가짜 데탕트 스포츠'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이자 장기자택구금중인 이웅산 수지는 로마시가 그녀에게 수여한 '로마 평화인권상'을 프랭크 컵츠크스타이자 오랜 불교도반인 로베르토 바지오가 대신 받아주도록 요청했다.

2006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도록 법적으로 공인된 불교는 현재

약16만명 신도의 교세로 발전, 로베르토 바지오와 같이 매일 잠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독실한 불자들이 증가일로에 있다.

출처: GDS

도쿄 고찰서 불교의상 패션쇼 열려

도쿄의 유서 깊은 고찰인 추키지온간지에서 불교신도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청소년불자의 신심을 굳히기 위한 스님들의 불교의상패션쇼가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다. 8개 종단에서

약40명의 비구, 비구니스님들이 출연한 이 행사에서는 합함과 불교음악을 배경으로 각종 정교한 전례복의를 선보이고 현란한 연꽃 꽃종이들이 뿌려지는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한편 지난해를 도쿄 도심의 콘모지는 사할 경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디스코, 요가 교실, 그리고 커피와 음료가 제공되는 '카미야초 열린 테라스 카페'를 개장했다. 현재 일본불교는 7만5000여 사람들이 9400만 불자의 불심을 새롭게 다지는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출처: ASAHI AP

'눈 먼 믿음' 버리고 '눈 뜬 자야' 찾다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영화배우 나오미 왓츠



50년대 미국서부의 명문대학들 사이에서 태동한 '샌프란시스코 르네상스'라는 미국 문화혁명의 정신적 주체가 불교철학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불교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요람 실리콘밸리, 국제금융가 월스트리트에서도 심신수양에서 다국적 경영실무에 이르기까지 널리 응용된다. 특히 70년대부터 불교는 종합예술제국 할리우드에서 급성장, 혁신적인 통신, 영상매체를 통해 국제전법이 펼쳐진다. 할리우드의 삼대법사라 할 리처드 기어,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 조지 루카스 말고도 여류스타들도 여러 인연으로 불제자가 되어간다. 열다섯 살에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수재이자 영화 '원초적 본능'의 스타 사튼 스톤 보살은 탐진지 삼독의 진장길을 헤매다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쉼 그늘을 찾았다.

재능 많고 말도 많은 코트니 러브 보살은 붓다의 옷자락을 붙들고 악몽, 알코올의 늪에서 헤어나고, 열정의 가수 티나 터너 보살은 불법이 가르친 인욕(忍辱)의 실천으로 모욕, 폭력으로 얼룩진 결혼생활의 악몽을 떨쳐냈다. 또 변호사 수습을 하다 만능탤런트로 변신한 제니퍼 로페즈 보살은 영화 '춤출까요?(Shall we dance?)'를 찍던 중 상대역인 리처드 기어의 단아한 불성에 끌려 도반이 됐다.

영화 '킹콩'의 스타 나오미 왓츠(사진) 보살의 경우, 서머릿 몸의 원작을 각색한 영화 '허울 좋은 녀울(The Painted Veil)'의 현지촬영차 중국에 머물다 어느덧 고운 불연을 맺었다.

이 메가스타들의 공통분모는 '눈 뜬 자야'다. 그래서 그

들은 여느 사회적 통념과 타성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예컨대 그들은 신앙의 경우도 남이 믿으니까 또는 믿으니까 그저 따라가지 않는다. '눈 먼 믿음'을 좇는 군상들과는 지능, 교육, 판단력에 근본차이가 있다.

불교는 서구의 미개인(?)들에게 거룩한 불법을 전파한다는 구실로 살육약탈하거나 병 주고 약 주는 따위의 만행을 자행한바 없다. 특히 할리우드 대스타들은 타고난 재색에 명예와 재산마저 두루 지녔다.

게다가 지극 젊은 산전수전부터 천국 젊은 호화사처까지 죄다 겪어버린즉, 더 이상 그런 데 신경을 안 쓴다. 그들은 이미 맛이 한참 가버린 종교적 버라이어티쇼 또는 광신적 집단히스테리에 안쓰러운 눈길을 보내며 하나둘 일주위로 들어서고 있다.

성취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Sunny Days or Rainy Days

-세상만사,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There was a woman ever crying for her never-ending worries, whose elder daughter had married an umbrella vendor and the younger a noodle vendor. On sunny days, she would weep, "Gee, no! No one will buy umbrella and my elder will get staved." And when rain came, she kept weeping, "Oh, my good! No noodle can be died for sale, and my younger will soon get staved." The neighbors called her "the weeping woman. One day, a monk asked, "What makes you so sad?" and she explained so and so. He chuckled, "Well, Let me tell you how to be happy." "How, venerable?" "So simple! On sunny days, think not of the elder and umbrella, but just of the younger dying much noodle." "And?" "On rainy days, think not of the younger and noodle, but just of the elder selling many umbrellas." "Oh, and both of them will soon get rich. We should have met earlier!" Soon afterwards, she became "the giggling woman".

허구한 날 걱정거리로 질질 찌는 어느 아줌마의 두 딸 중 큰 딸은 우산장사한테, 작은 딸은 국수장사한테 시집을 갔다. 해가 뽕뽕한 날엔 그녀는 "아이고, 이런 맑은 날씨에 누가 우산을 사주냐? 내 큰 딸 굶어죽겠네!"하며 징징댔다. 그러다 비가 오면 "안 돼! 내 딸 굶어 죽을 판이니 작은 딸 굶어 죽어"라며 또 울었다. 동네사람들이 "정말 아줌마라 부르는데 그녀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반말 뭐가 그리도 슬프시오?" 여차저차 그녀의 얘기를 들은 스님이 깔깔댔다. "그럼 늘 딸딸라 신바람이 날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어떻게요, 스님?" "아주 간단해요. 해가 뽕뽕한 날엔 큰 딸이랑 우산은 생각 마시고, 작은 딸이 국수 많이 팔리는 생각만 하세요." "예?" "그리고 비오는 날엔 작은 딸이랑 국수 생각은 치우시고 큰 딸이 우산을 많이 파는 생각만 하세요." "어머나, 그럼 둘 다 굶부자 되겠네. 진짜 스님을 봐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뒤로 그 정경 아줌마가 '깔깔 아줌마'로 바뀌었다!"

번안·성취 스님/그림·아테수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신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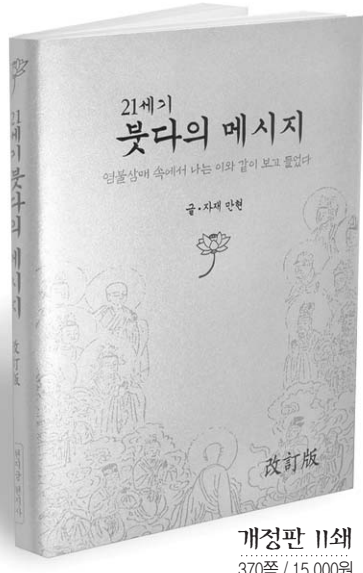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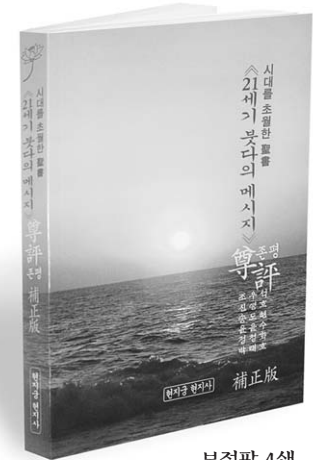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